

원가절감 경쟁력강화 이중부담 우려

기술집약 연구개발분야 시급히 보완해야

WTO체제 속의 농약산업 - 그 영향과 대책



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WTO체제 출범과 농업여건의 변화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시장에서는 전후 50년 동안 세계의 경제질서를 지켜온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WTO가 출범하면 관세가 낮아지고 무역장벽이 없어져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농산물과 서비스 등 공산품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경쟁력이 약한 한국농업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 파급효과로 우리농업은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 위축과 탈농의 가속화로 농촌 활력의 저하, 유휴농지의 증가 등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UR체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수입자유화시 총 GNP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1992년 7.8%에서 2001년에는 2.8%로 격감되고 농림수산업 취업자와 농가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16%, 13.1%에서 7.9%, 5.1%로 각각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1992년 42.6억불에서 2001년 13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성장률은 마이너스성장 내지 정체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10개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도 수입개방에 의해 92년 83~104% 수준에서 2000년에 41~99%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15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자 잉여도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95~2001년 기간중 총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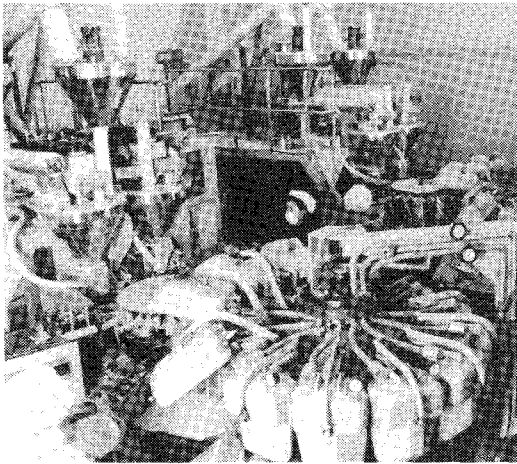
조8천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농업이 국제화 과정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의 수립과 방향제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농업구조의 개선, 농어촌개발 및 농어민 복지증진 대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WTO출범이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WTO체제 출범이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의 경쟁력 측면이다.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약산업의 영향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농약 수요에 대한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농업생산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배면적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농약 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 농약소비량 전망해 보면 수도용 농약의 소비



WTO출범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농약산업은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는 감소가 예상되나 수도의 직파 재배가 실시되면 제초제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수, 원예용 농약의 소비는 식부면적의 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농약은 환경오염 방지와 생산비 절감의 측면에서 적정방제가 요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농약소비의 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UR 이후 후속조치로서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출범에 따른 과급효과를 들 수 있다. 그린라운드에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탄산가스 방출억제, 탄소세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영세한 농약산업으로서는 원가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WTO체제 출범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입개방 이후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농약산업도 값싸고 양질의 농약을 공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농약은 현재 완제품 수입이 개방되어 있으나 농약관리법에 의해 수입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시설 기준 등)이 강화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의 특허농약 품목이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외국농약의 수입이 증대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농약산업은 생산원가의 절감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의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농약판매 자유화시 국내 농약 시판업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WTO 체제가 출범하면 선진국이 물질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밀화학제품의 하나인 농약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기개발된 원제를 복제 또는 합성하여 제조되어 왔으나 협정시행으로 신물질의 보호범위나 권리범위의 확대로 인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 지급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국내 농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약산업이 장기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농약산업의 발전방향 고부가가치의 첨단 정밀 화학산업으로의 발전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약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기회에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1970년대 이후 국내농약산업은 원제 합성능력의 급격한 성장으로 높은 성장을 계속해 왔지만 정밀화학공업으로서 그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농약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밀화학공업의 기술수준이 낮고 농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의 미흡으로 인해 첨단기술산업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농약산업은 우선 첨단기술의 정밀화학산업으로서 재육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약산업은 그동안 완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적 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농약산업은 균형있게 발전할 수가 없었고 완제품 판매경쟁 지향적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만성적인 과당경쟁, 유통질서의 혼란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약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먼저 연구개발과 기술집약부문을 보완하여 균형있는 산업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기술개발력 수준으로 볼 때 농약산업은 신농약개발부문, 원료생산 및 신공정개발부문, 완제품농약 생산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거대 농약회사가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 집약분야인 신농약개발부문과 원료생산 및 신공정개발부문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도국의 농약산업은 단순가공 수준의 완제품 농약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세계시장로의 진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우

리나라 농약산업의 경우도 일부 신공정개발분야의 성과를 제외한다면 완제품 농약생산에 특화된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환경보전형 무공해 산업으로의 발전

급격한 농약사용의 증가는 식량 자급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접어들어 주곡의 자급이 실현되고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농약의 잔류독성문제를 비롯해 농약에 대해 사회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만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며 지금까지도 환경보전문제와 연계해서 소비자와 농약산업이 끊임없이 합의점을 찾아 노력하고 있다. 독성이 강하고 안전성이 낮은 농약의 사용은 일차적으로 농약을 취급하는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식품에 잔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WTO 출범이후 예상되는 그린라운드(GR)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소가 될 환경 경영적인 문제를 사전에 극복하기 위해서 농약산업은 장기적으로 저독성 및 안전성 농

약을 생산하는 환경보전형 무공해 산업으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농약산업이 장기적으로 한정된 국내시장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성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기업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농약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약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약산업의 발전대책

농약산업은 WTO 출범에 따른 농업부문의 생산위축으로 인하여 장래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안보 등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을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경영규모확대 등의 생산구조 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통시설의 지원 등 국내농업의 새로운 지원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약업계는 변화하는 농업정책과 국제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농약산업은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약을 개발공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대량 보급이 예상되는 수도의 직파 재배는 다양한 제초제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에 관련하여 저독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농업자재시장의 개방에 따라 농약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농약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농약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완제품 농약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밀화학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약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조성을 위해서 세제혜택 등 각종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험연구기관의 설립과 육성을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 각종시설정비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농약산업의 경영합리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경영합리화는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개선과 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농약산업은

국내시장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이 시점에서 업종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경쟁력이 있는 업체도 경영개선을 통해 원가절감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농약산업은 관련제품의 개발생산 등으로 경영의 다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약유통조직의 효율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향후 농약 수입상에 대해 농약판매가 허용되면 현재 농약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과 시판농약 도·소매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농협과 시판조직은 방제기술지도 및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질을 개선해야 하며,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협은 농약구매사업의 강화를 위해 농약 방제기술 지도요원의 확보가 요구되며, 농약공장의 인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약시판조직은 농협의 구매사업이 강화될 경우 현재의 영세한 판매조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농약시판조직은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가격교섭력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판조직의 효율적인 육

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단위에 농약, 비료 등을 취급하는 종합자재백화점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하면 WTO의 출범으로 농업이 어려워지고 농약산업도 다소 위축되었지만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농약산업, 정부, 농민 등 각계 각층의 역량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농약산업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약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농약생산업체와 유통조직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약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키워 고부가가치 자본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밀화학공업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된다. 향후 농약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수출전략 산업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WTO 체제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와 업계가 국제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농약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약정보**